

아레나도, '300홈런+골드글러브 10회'...역대 MLB 8번째

등록 2023.04.10 11:12:51

아레나도, 197일 만에 홈런포 가동
MLB 300홈런, 현역 선수 8번째



[밀워키=AP/뉴스시] 놀란 아레나도가 8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아메리칸패밀리 필드에서 열린 2023 MLB 밀워키 브루어스와 경기에서 3회 투런 홈런포를 치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3.04.10.

[서울=뉴스시]이명동 기자 =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뛰는 놀란 아레나도가 빅리그에서 300번째 아치를 그렸다. MLB 역사상 8번째 300홈런과 골드글러브 10회를 동시에 기록한 선수가 됐다.

아레나도는 9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아메리칸패밀리 필드에서 열린 2023 MLB 밀워키 브루어스와 경기에서 4번 타자 겸 3루수로 출전해 자신의 300번째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이날 아레나도는 3타수 2안타 1홈런 3타점 1볼넷을 기록했다.

3회 무사 2루, 아레나도는 밀워키 선발 투수 에릭 라우어의 2구를 타격해 비거리 129m 좌월 투런 홈런을 쳤다.

지난해 9월24일(현지시간) 299번째 홈런을 쳐낸 아레나도는 이후 6경기 동안 침묵했다. 또 올해 개막 뒤 7경기에서 침묵하던 홈런포는 개막 뒤 8번째 경기에서 불을 뿜었다. 아레나도가 299홈런을 달성한 뒤 197일 만의 홈런포다.

이번 홈런으로 아레나도는 현역 선수로는 8번째 300홈런 달성자가 됐다. 아울러 아레나도는 MLB 통산 8번째로 300홈런과

골드글러브 10회 수상을 동시에 기록했다.

이날 아레나도가 때려낸 300번째 홈런 타구를 잡은 관중은 아무런 대가 없이 구단에 홈런 타구를 기증했다. 이에 아레나도는 자신이 서명한 기념품 꾸러미를 해당 팬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레나도는 빅리그 11시즌 동안 데뷔 시즌부터 10홈런을 쳐내기 시작해 2015년에는 타구 42번 담장 밖으로 넘겼다. 뒤이어 2016년 41홈런, 2017년 37홈런, 2018년 38홈런, 2019년 41홈런 등을 쏘아 올렸다.

2021년 6월 250번째 아치를 쏘아올린 이후 1년 10개월 만에 300홈런을 달성했다.

또 데뷔 시즌인 2013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아레나도는 내셔널리그(NL) 3루수 부문 골드글러브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아 모두 10회 수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